



### 울산 교육기관에 재해예방 문화 확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이 지난 4월 18일 창의적 체험활동과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 실천의 교육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인프라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시설물 안전관리지원 등이다. 협회의 신진규 회장은 “학교에 안전문화가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미래의 산업현장도 안전해질 수 있다”라며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울산지역에 안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일선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4월 2일 개최했다.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은 기관장들은 경남서부지회 박정규 지회장, 충북북부지회 박용호 지회장, 서울지회 윤경채 지회장, 서울동부지회 이재현 지회장, 경북북부지회 류창하 지회장 등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신진규 회장은 “이번 인사이동은 기관장급 인사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배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협회가 지역 산업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본격 ‘시동’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협회 건설안전본부는 지난 3월 29일 ‘울트라건설(주)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경북 안동 소재)’에서 첫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미리 교육을 실시하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협회 역시 이런 추세에 발을 맞추어 한발 앞선 교육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은 안전을 위한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창원지회,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성준)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사무국장 이인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원장 박덕곤) 등은 지난 3월 22일 창원병원 앞 사거리에서 산업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근로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창원지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안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우리 창원지회는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안전활동을 펼쳐 지역의 안전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남지역의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기대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의장 배동한)가 지난 4월 12일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경남지역 사업장에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전개하기로 했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자율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협회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노하우가 현장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동한 의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각 사업장에 자율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 협회, 신임 기술이사에 김성철 전 경북북부지회장 선임



김성철 前 경북북부지회장이 지난 3월 20일자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기술이사에 취임했다. 김 신임 기술이사는 부산 광성공고, 부경대 산업안전과, 동아대학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협회에 입사해 그동안 창원지회 사무국장, 부산지회 사무국장, 중앙회 안전기술국장, 울산지회 지회장, 경북북부지회 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협회 출신의 인사로서, 협회와 산업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로 평가된다. 김성철 신임기술이사는 "협회에서 쌓은 산재예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회의 발전과 산재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서부지회, 아파트형 공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



경기서부지회 부천출장소(지회장 박용석, 출장소장 송남근)와 이젠관리단(회장 김재서)은 지난 4월 6일 이젠아파트형공장(김포시 양촌면 양촌산업단지 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입주대표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보건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서부지회 박용석 지회장, 송남근 부천출장소장, 이젠관리단의 김재서 회장 등 양 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향후 양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체제구축 및 안전컨설팅, 안전보건교육 등 7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경북북부지회,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지회장 류창하) 및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원장 성수원), 구미김천지역 안전관리자협의회(회장 남일우) 등의 기관들은 지난 3월 29일 안전보건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오산(경북 구미시 소재) 금오재단에서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내 안전도 갖기' 결의대회도 함께 실시되어 관내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재해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경북북부지역의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관내 안전인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나가자"고 당부했다.